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ne 2024 Issue | Vol. 45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의 경쟁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 — page 1-3
- 허가 과정이 간소화된 IFP — page 3-4
- 노동부, 외국인 근로 허가 검토 강화 — page 4
- 부드러운 인플레이션은 BSP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page 5
- 렉토, 세금 개혁을 위해 재정부 팀을 재편합니다 — page 5
- 노동부, 7월까지 새로운 NCR 최저임금 명령 확인 — page 6
- 관광 산업의 GDP 점유율이 2023년에 8.6%로 증가했습니다. — page 6-7

필리핀의 경쟁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

June 19,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의 연례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순위는 변동이 없었으며, 비즈니스 효율성 하락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뒤처진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4 세계 경쟁력 순위(WCR)에서 필리핀은 작년과 동일하게 67개 경제 중 52위를 기록했다.

또한, 필리핀은 보고서에 포함된 14개의 아시아-태평양 경제 중 13위를 유지한 지 7년째를 맞이했다.

싱가포르가 올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이 이었다.

올해 지수는 가나, 나이지리아,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2023년에는 이 지수에 포함된 경제가 64개에 불과했다.

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인프라라는 네 가지 경쟁력 요소에 걸쳐 336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각 경제를 순위 매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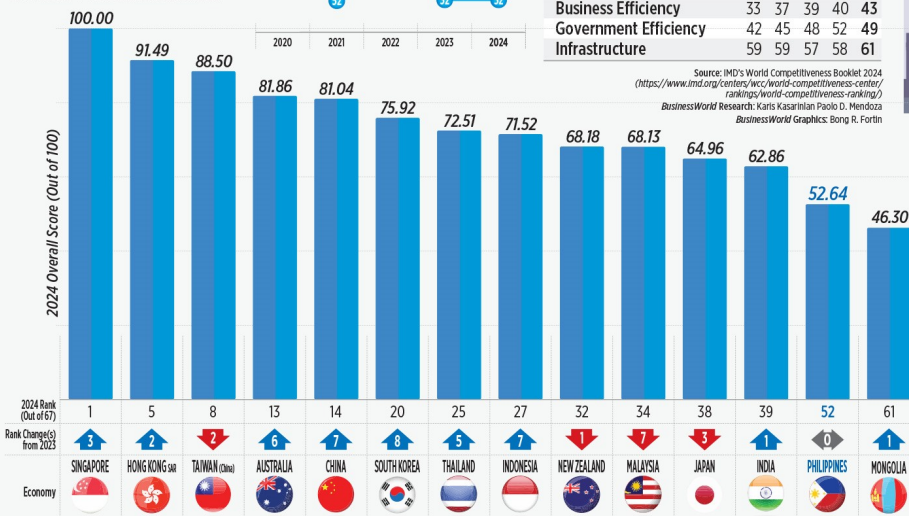


The Philippine flag is raised at the Rizal Monument in Manila, June 11, 2024. — PHILIPPINE STAR/EDD GUMBAN

PHILIPPINES REMAINS ASIA'S LAGGARD IN COMPETITIVENESS RANKING

The Philippines continued to lag in the region, as it maintained its rank of 52nd out of 67 economies with a score of 52.64 in the 2024 edition of the annual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by Switzerland-bas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Competitiveness is assessed based on four main factors: economic performance, government efficiency, business efficiency, and infrastructure.

2024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s of Asia-Pacific Economies



Philippines' Overall Performance



Philippines' Main Factors Historical Rankings

	2020	2021	2022	2023	2024
Economic Performance	44	57	53	40	40
Business Efficiency	33	37	39	40	43
Government Efficiency	42	45	48	52	49
Infrastructure	59	59	57	58	61

Source: IMD's World Competitiveness Booklet 2024
(<https://www.imd.org/campus/i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competitiveness-ranking/>)
BusinessWorld Research: Karis Kasarinan Paolo D. Mendoza
BusinessWorld Graphics: Bong R. Fortin



Most Competitive Economies

2024 Rank (Out of 67)	Economy	Rank Change(s) from 2023	2024 Overall Score (Out of 100)
1	Singapore	▲3	100.00
2	Switzerland	▲1	97.55
3	Denmark	▼2	97.07
4	Ireland	▼2	91.86
5	Hong Kong, SAR	▲2	91.49

Least Competitive Economies

2024 Rank (Out of 67)	Economy	Rank Change(s) from 2023	2024 Overall Score (Out of 100)
67	Venezuela	▼3	28.85
66	Argentina	▼3	35.89
65	Ghana	New Entrant	39.25
64	Nigeria	New Entrant	39.81
63	Peru	▼8	43.44

NOTES:
— Ghana, Nigeria, and Puerto Rico made their debut in the report,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economies to 67 from 64 the previous year.
— Each main factor is divided into five equally weighted subfactors.

[Cont. page 2]

필리핀의 경쟁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

[Cont. from page 1]

IMD 세계 경쟁력 센터의 수석 경제학자인 호세 카바예로(José Caballero)는 필리핀의 경쟁력을 저하시킨 요인이 정부와 비즈니스 효율성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카바예로 씨는 필리핀이 외국인 투자자 보호(65위), 공공 부문 계약의 투명성(56위), 국영 기업의 영향(46위), 신생 기업 밀도(62위)와 같은 비즈니스 법규 측정치에서 하락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영연구원(AIM) 리잘리노 S. 나바로 정책 센터의 경쟁력 책임자 자밀 파올로 S. 프란시스코(Jamil Paolo S. Francisco)는 필리핀이 비즈니스 효율성과 인프라라는 두 요소에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52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올해 비즈니스 효율성에서 2023년 40위에서 43위로 세 계단 하락했다. 노동 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와 가치에서 큰 하락이 있었다.

프란시스코 씨는 이메일 성명에서 "비즈니스 효율성의 하락은 특히 우려스럽다. 이는 필리핀이 10년 전 비교적 잘 수행한 요소였으며, 2019년 이후 이 요소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관찰했다"고 말했다.

인프라 요소에서 필리핀은 작년 58위에서 2024년 61위로 세 계단 하락했다. 이는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및 교육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란시스코 씨는 필리핀의 인프라 요소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이는 필리핀이 오랫동안 가장 약한 분야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한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인적,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정말로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경제 성과에서 40위를 유지했으며, 정부 효율성에서는 세 계단 올라 49위를 기록했다.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 조지 T. 바르셀론(George T. Barcelon)은 필리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본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특히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품질 좋고 저렴한 전력의 가용성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라고 바르셀론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도로, 항구, 공항, 농업 부문의 주요 통로와 같은 이동성 또는 연결성의 가용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국가의 노동력 기술 하락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직업에 필요한 기술은 정보 기술 및 4차 산업 혁명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바르셀론 씨는 말했다. "이 부분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특정 산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거나 목표 지향적인 기술 세트를 강화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IMD에 따르면, 필리핀은 비즈니스 법규(60위), 기본 인프라(62위), 교육(63위)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AIM 센터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4년에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궤도를 개선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관리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물리적,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경제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서필리핀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등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경영협회(MAP)는 필리핀의 변동 없는 경쟁력 순위를 긍정적 소식이자 도전 과제로 보고 있다.

"인프라는 주요 고려 사항이며, 우리는 모두 필리핀의 순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마르코스 대통령 행정부가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MAP 회장 레네 D. 알멘드라스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말했다.

"다른 고려 사항은 노동 생산성인데, 이는 필리핀 노동 인력의 교육과 발전에 의존하는 요소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Cont. page 3]

필리핀의 경쟁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

[Cont. from page 2]

한편, 국가경제발전청(NEDA)과 반빨강 테워 기관(ARTA)은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확대하면서 내년에 필리핀의 순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제59호의 엄격한 시행과 관련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에 순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ARTA 장관 에르네스토 V. 페레즈는 말했습니다.

ARTA는 화요일에 정부의 인프라 주요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59호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NEDA 부차관 요셉 J. 카푸노는 "행정명령 제59호의 완전한 시행으로 다음 라운드에서 좀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가 절차 외에도 고유의 문제(ROW)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특히 ROW 법안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 법안은 투자 및 경제 사업을 담당하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 프레드릭 D. 고의 우선 법안 중 하나입니다.

경제 자유 재단 회장 칼릭스토 V. 치키암코는 필리핀이 농산물 관련 보호무역주의를 제거한다면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 더 나은 순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부문 보호는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라고 치키암코 씨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필리핀은 이중 자유무역 협정을 더 많이 체결하고, 노동법을 개정하며, 교육을 개선하고, 광업 허가 부여를 포함한 관리적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IMD의 카바에로 씨에 따르면, 경쟁력이 높은 경제는 공공 및 민간 기관 강화, 기업이 정신, 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그는 교육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잠재력 개발 효과를 촉진할 것이라며, 국가의 인재와 사회경제적 목표 간의 일치를 보장할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교육에 대한 총 공공 지출에서 55위, 초등 교육의 질에서 60위, 학생 대 교사 비율에서 6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연구 및 개발 성과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국가는 지출 및 연구자와 인력 총 수 모든 측정에서 불충분한 순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6/19/602694/phl-competitiveness-still-lags-in-asia-pacific/](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6/19/602694/phl-competitiveness-still-lags-in-asia-pacific/)

허가 과정이 간소화된 IFP

June 19, 2024 | Irma Isip and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PEREZ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청(NEDA)이 승인한 인프라 주요 프로젝트(IFP)의 허가 절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행정명령 제59호(EO 59) 또는 IFP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의 시행 규정(IIR) 공식 발표에서, 반빨강 테워 기관(ARTA) 장관 에르네스토 페레즈는 이 법률로 IFP 신청이 거쳐야 할 정부 허가 기관 수를 12개(최대 18개)로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EO 59 이전) IFP 허가 절차는 실제로 약 30개의 다양한 발급 기관이 관련되어 복잡했습니다. EO 59는 모든 국가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 단위에게 IFP 허가를 위한 라이선스, 승인, 인증 또는 허가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페레즈는 어제 마닐라에서의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페레즈는 처리 과정이 각 기관이 2018년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의 용이성에

관한 법'인 공공 행정법(Republic Act 11032)에 따라 정해진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부터 20일까지의 업무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Cont. page 4]

허가 과정이 간소화된 IFP

[Cont. from page 3]

이 시행 지침은 전자 또는 디지털 서명의 사용을 허용하고, 책임을 직접 감독하는 직원들을 대표할 최대 3명의 필요 서명자 수를 제한하며, 사실상의 서류 제출을 통한 동시 처리를 허용하며, 관련 허가 기관이 규정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 또는 갱신되도록 강제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O 59 및 그의 시행 규칙(IIR)은 라이선스, 승인, 허가, 인증 또는 허가증의 발급에서의 불필요한 지연을 제거하고, IFP의 적시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한, EO는 중복되고 부담스러운 절차와 요구 사항을 제거하며, IFP 관련 신청의 동시 처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지침은 국가 정부 기관, 정부 소유 및/또는 통제하는 기업, 기타 정부 기구 및 이와 관련된 문서 발급에 관여하는 지방 정부 단위에 적용됩니다.

NEDA 장관 Arsenio Balisacan은 EO 59 하에서의 간소화된 절차가 국가의 투자 환경을 향상시키고, 사업 용이성을 개선하며,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자본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역의 동적인 이웃들과 발전의 경제적 기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수천 명의 필리핀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며 선도 및 후행 지역을 연결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하고 지속적이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Balisacan은 NEDA 부차관 요셉 카푸노가 전달한 발언에서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경영협회(MAP) 회장 레네 알멘드라스는 “이는 사업 용이성에 관한 우리의 우선 과제와 일치하기 때문에 ARTA의 이 노력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P은 ARTA의 정부가 시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변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임무를 완전히 지원해 왔으며, 좋은 규제 실천,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재공학, 협력 및 기술 적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필요한 라이선스, 승인, 허가, 인증 및 허가증 발급 과정을 더욱 간소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경제적 변혁을 위해 필요한 IFP의 실시를 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알멘드라스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permitting-process-on-ifps-streamlined/](https://malaya.com.ph/news_business/permitting-process-on-ifps-streamlined/)

노동부, 외국인 근로 허가 검토 강화

June 19, 2024 | By Philippine News Agency

노동부(DoLE)는 필리핀 해외 게임 운영자(POGO)에서 적절한 문서가 없거나 부정한 문서를 사용한 외국 근로자를 고용한 사건들을 기점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AEP)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The Manila Times®

"문서 심사와 요구서 제출 외에도, 저희 지역 사무소의 일선 직원들이 특히 수도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EP 신청자들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장관 비엔베니도 라그에스마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필리핀어로 말했습니다.

라그에스마 장관은 또한 불법 근로자들이 국가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민국과의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EP 신청자들에게 필요한 문서로는 여권 바이오 페이지 사본, 고용 계약서, 적절한 비자가 포함됩니다 - 신규 신청자는 9(a) 비자, AEP 갱신을 원하는 자는 9(g) 비자입니다.

"또한 AEP를 외국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필리핀 근로자들이 대체되거나 배척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라그에스마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 노동장관은 또한 외국 국적자 고용에 관여하는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AEP 발급 정책에 필요한 조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6/19/business/top-business/dole-tightens-alien-work-permit-screening/](https://www.manilatimes.net/2024/06/19/business/top-business/dole-tightens-alien-work-permit-screening/)

부드러운 인플레이션은 BSP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June 20, 2024 | By: Ian Nicolas P. Cigara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INQUIRER.NET

필리핀 마닐라 - HSBC 글로벌 리서치는 국내 인플레이션의 예상보다 빠른 완화가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충분한 여유를 제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동조할 필요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정책 결정 시 국내 개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SBC의 경제학자인 아리스 다카나이는 필리핀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Fed와의 실질 정책 금리 차이가 사전 팬데믹 수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적시에 정책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한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카나이는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명목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재정립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실질 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명목 금리 조정입니다.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차이가 클수록 필리핀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입니다.

BSP, 미국 Fed 정책 금리 차이

첫 번째 분기에는 BSP의 정책 금리와 미국 연방 기금 목표 금리 간의 차이가 100 베이스 포인트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현지 통화인 필리핀 페소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지역 통화 당국이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필리핀 페소는 6월 대부분 시간 동안 19개월 최저점에서 거래되었습니다.

BSP는 올해 초에 6.5%로 17년래 최고 수준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Fed도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5.25%에서 5.50%로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쌀 관세를 대폭 인하한 결정 이후 지역 가격 상승이 더욱 완화된다면, 다카나이는 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64555/softer-inflation-may-help-bsp-move-away-from-fed](https://business.inquirer.net/464555/softer-inflation-may-help-bsp-move-away-from-fed)

렉토, 세금 개혁을 위해 재정부 팀을 재편합니다

June 19, 2024 | Chino S. Leyco | Manila Bulletin

핀란드 재정장관 랄프 G. 렉토는 마르코스 행정부의 세금 개혁 제안과 재정 정책 권고를 개발하는 그의 팀을 재편했습니다.

재정부 차관 카를로 페르민 S. 아드리아노(왼쪽)와 재정부 부차관 레나토 E. 레시데 주니어(오른쪽).

2024년 6월 14일 날짜의 부서 명령서에 따르면, 렉토는 재정부 차관인 카를로 페르민 S. 아드리아노를 새로운 재정 정책 및 모니터링 그룹(FPMG)의 책임자로 임명했으며, 이는 지난 4월 말에 이 역할을 맡은 재정부 부차관 레나토 E. 레시데 주니어의 후임입니다.

마닐라 블렛인에서 확인한 새 지침에 따르면, 레시데는 국가 세금 연구 센터(NTRC)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세금 연구 및 지출 모니터링(텍스 리서치 앤드 익스펜디처 모니터링) 부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렉토는 레시데의 재배정이 세금 연구 노력의 조정 및 효율성 개선과 세금 지출 및 수익 관련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분석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056-2024 및 057-2024 부서 명령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난 4월 레시데가 임명되기 전에 아드리아노는 전 재정장관 벤자민 E. 디오코노 시절 FPMG의 담당 임시 대행을 맡았습니다.

세금 개혁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FPMG는 국가 정부 수익의 예측 및 관리, 현금 프로그래밍, 재정 활동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FPMG의 책임자로서 아드리아노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전 정부로부터 상속받은 주요 세금 개혁 조치의 시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는 비주거 세금이 도입된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세 부과, 포괄적 세금 개혁 프로그램의 패키지 4의 입법, 광업 재정 제도의 재구성, 자동차 사용자 요금 제도의 개정 등이 포함됩니다.

DOF는 새로운 세금 조치를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렉토는 정부의 세금 관리 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6/19/recto-revamps-dof-s-team-for-tax-reforms](https://mb.com.ph/2024/6/19/recto-revamps-dof-s-team-for-tax-reforms)



Finance Assistant Secretary Karlo Fermin Adriano (left) and Finance Undersecretary Renato Reside Jr. (right).

노동부, 7월까지 새로운 NCR 최저임금 명령 확신

June 20, 2024 | Gerard Naval | Malaya Business Insight



노동부(DOLE)는 어제 국가 수도권 내 지역 삼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RTWPB)가 다음 달까지 새로운 임금 명령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닐라에서 열린 언론 포럼에서 라구에스마 노동장관은 NCR 임금위원회가 지난 임금 명령의 기념일인 7월 16일까지 적기에 임금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의 후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라구에스마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7월 16일 기념일 때 RTWPB-NCR이 진행한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으며, 현재 최저임금율인 P573에서 P610으로의 인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임금위원회는 임금율을 낮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인상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임금위원회의 발표는 인상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최소한이라고 보지만, 중요한 점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라고 라구에스마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목요일, NCR 임금위원회는 퀘손시의 직업 안전 및 보건 센터에서 오전 9시에 최저임금 조정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단체 및 노동 조직이 이 공개 청문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WIN은 NCR 내 사설 기관 근로자들의 일일 최저 임금을 P597 증액하길 요구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news/dole-confident-of-new-ncr-wage-order-by-july/

관광 산업의 GDP 점유율이 2023년에 8.6%로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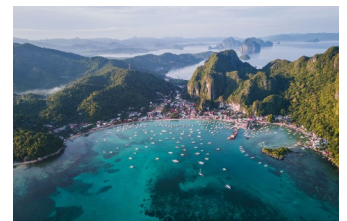
June 18, 2024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관광 산업은 2023년에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의 6.4%에서 상승했습니다. 이는 후 코로나 팬데믹 재개로 인한 것으로, 필리핀 통계청(PSA)이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PSA는 초기 데이터를 인용하여, 관광 산업의 직접 총가치 추가는 2023년에 2.09조 페소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의 재조정된 1.41조 페소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관광 관련 지출은 작년에 6974억 4600만 페소로 87.7% 증가했습니다.

국내 관광객의 지출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나 국제 여행의 일환으로 발생시킨 비용을 포함하여, 2023년에 2.67조 페소로 72.3% 증가했습니다.



EL NIDO, PALAWAN — EIBNER SALIBA-UNSPLASH

숙박에 대한 지출은 3479억 9700만 페소로 143.2%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 및 음료 지출은 5683억 3500만 페소로 131.4% 증가했습니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작년에 621만 명으로, 6.4% 증가했으며 전체 노동력의 12.9%를 차지했다고 PSA는 말했습니다.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레오나르도 A. 란조나는 팬데믹 이후의 "복수 소비(revenge consumption)"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필리핀이 이웃 ASEAN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항상 우리보다 국제 방문자가 많은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미발달된 인프라와 스마트 생태계의 부족 때문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채팅을 통해 말했습니다. *[Cont. page 7]*

관광 산업의 GDP 점유율이 2023년에 8.6%로 증가했습니다.

[Cont. from page 6]

2023년에 필리핀은 국제 방문객 545만 명을 유치했으며, 이는 태국(2300만 명), 베트남(1260만 명), 인도네시아(1168만 명)의 숫자에 비해 많이 뒤처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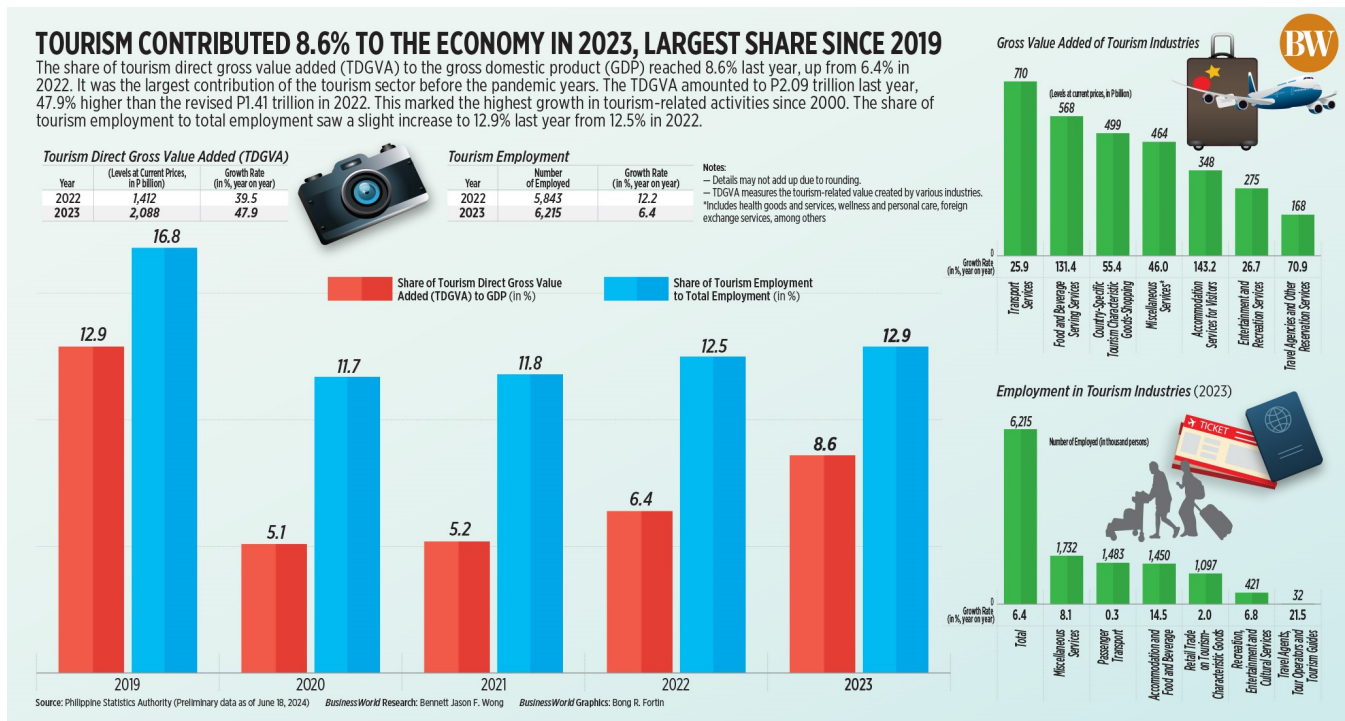
안전 문제, 해안 지역의 과잉 개발, 오염, 자연 명소의 훼손 등의 문제가 관광 산업의 확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란조나 씨는 말했습니다.

“필리핀이 여전히 가난한 나라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우리를 더 부유한 이웃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경제 자유 재단 회장 Calixto V. Chikiamco는 관광 관련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 법과 질서의 개선, 비자 정책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은 엄청난 자연과 문화적 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프라, 안전, 환경 보호, 마케팅이 개선된다면 관광 부문은 상당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란조나 씨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정말로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외국 방문객 수를 770만 명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6/18/602702/tourism-share-of-gdp-rises-to-8-6-in-2023/>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Lotte Corporation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Pepsi Cola Products Philippines Inc.